

가독

‘찬미 받으소서’와 함께 하는 생태 영성 주제강좌를 듣고

임수진
크리스티나(해운대성당)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사회교리학교 주제강좌가 몇 년 만에 대면으로 열린다는 소식에 반가운 마음으로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본당이나 단체들에서 ‘찬미받으소서’를 읽고 나뉘는 실천들을 하고 있던 터라 큰 기대가 없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라봄’ ‘친교’ ‘살림’을 주제로 한 강좌는 쉽고도 깊었습니다. 그리고 달랐습니다.

위기에 대한 윤리와 책임을 강조하며 무거움을 자아냈던 기존의 접근과는 달리 사진과 영상, 시와 동화, 음악 등을 활용해 하느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감상하는 가운데 생태를 바라보는 삶의 태도 전환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첫 강좌에서 신부님은 “보는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 생태 영성의 시작”이라며 “제대로 보고 있는가?”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잠시 숨이 멎었습니다. 보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기에 가치와 의미를 놓치고 있었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강의와 자료 속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아는 마음, 모든 과정을 이끌고 있는 신비로운 존재를 느낄 수 있는 마음을 잊고 있었했습니다.

‘자신과 연결된 형제와 자매’로의 연결성과 관계성을 강조하신 2강 ‘친교’의 영성에서 신부님은 “지구를 책임져야 할 대상으로 ‘지키기’ 전에 먼저 친한 친구가 되라”고 제안하셨습니다. 이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아픔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요. “낮설지 않은 생태 위기가 좀처럼 변하지 않는 이유는 아파하지도 슬퍼하지도 않기 때문”이라는 말씀이 아프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호주 산불로 소방관에게 물을 받아먹는 코알라 사진, ‘모두 다 꽃이야’ 동요 감상 속에서 펼쳐진 마지막 강좌에 이르니 ‘찬미받으소서’는 더 이상 회칙으로만 있는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별새의 영상. 두려움에 갇혀 움직이지 못한 채 눈만 보이는 모습에서 저의 나약함도 보였습니다. 그 작은 별새도 한 모금씩이라도 산불을 끄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는데, 하느님의 모상인 저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는 없어도 묵묵히 나무를 심는 사람이 되어 보렵니다. 이번 강의로 180도 변할 수는 없겠지만 15도씩 비뚤어진 길을 주님이 만드신 세상을 향해 나아가려 합니다. 

“하느님과 피조물의 꿈, ‘사랑하는 아마존’”

이영주 스텔라 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 수녀회 |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을 보내면서, 생태환경에 대한 교회의 또 다른 문헌, 「사랑하는 아마존」을 소개합니다. 2019년 10월 6~27일 로마에서 주교대의 원회의의 범아마존 특별회의가 열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마존」은 그에 따른 교황권고, “아마존, 교회와 온전한 생태를 위한 새로운 길”이라는 최종문서입니다. 지구의 허파라 불리는 아마존은 지난 30년간 전체 면적의 1/5 이상이 파괴되었고, 원주민들과 다양한 생물은 삶의 자리를 잃고 생존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찬미받으소서」가 지구라는 ‘공동의 집’을 배경으로 한 것에 비해, 「사랑하는 아마존」은 아마존 지역을 더 깊게 다루고 있습니다.¹⁾ 우리나라에서는 이 문제를, 일부 사람들의 이기심 때문에 삶의 터전을 잃고 쫓겨나야 하는 도시빈민이나 철거민들의 고통에 대입시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찬미받으소서」처럼, 여기에서도 통합 생태론의 관점을 도입합니다. 생태문제는 정신적 배경을 바탕으로 인간의 모든 활동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마존의 문제를 **사회, 문화, 생태, 교회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담한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꿈꿉니다. 그리하여 이 책은 ‘사회적 꿈’, ‘문화적 꿈’, ‘생태적 꿈’, ‘교회의 꿈’이라는 네 개의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회적 꿈’**입니다. ‘아마존’이라고 하면 자연을 떠올리기 쉽지만, 개발로 파괴된 원주민들의 삶을 먼저 다룹니다. 이들은 조상 대대로 살아온 숲에서 쫓겨났고, 도시 변두리로 옮겨가 도시빈민이 되었습니다. 가난, 인신매매, 노예 살이, 성 착취 등 예전에 없었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미개한 야만인’이라는 낙인과 함께,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동등한 존엄이나 권리를 지닌 인간이 아니라, 치워버려야 할 장애물로 여겨졌습니다.”(12항)

이 글에서는 “건전한 분노를 표출하며 연대할 것”을 촉구합니다(17항). 그런데 문제 해결에 있어 원주민들이 주체가 되어야 하고, 대화 석상에서 가장 강력한 목소리가 되어야 합니다(26항 참조). 그렇지 않으면 “일부를 위한 일부의 계획” 또는 “배부른 소수를 위한 잠시뿐인 평화나 허울뿐인 서면 합의”에 그치고 맙니다(27항). 예언자적 목소리를 높이도록 촉구하며 “이 꿈은 다음 꿈으로 이어집니다.”²⁾

다음은 **‘문화적 꿈’**입니다. 아마존 지역은 고유한 문화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사실, 문화란 우열을 가릴 수 없는 것입니다. ‘미개’하다는 말도 어느 한 쪽 눈으로 본 판단입니다. 모든 문화는 각자 고유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산업사회의 문화를 기준으로 다른 문화를 무시한다면, 안타깝게도 인류의 뿌리를 간과하는 셈입니다.

1) 「찬미받으소서」 38항에서도 아마존을 언급함. 반대로, 「사랑하는 아마존」에도 「찬미받으소서」의 구절이 곳곳에 인용됨. 특히 그 예로써 49~59항; 81~82항.

2) 이 표현은 각 장의 끝에 후렴구처럼 반복됨. 이 글 전체가 아마존이 간직한 이야기처럼, 하나의 서사시와 같은 느낌을 갖게 해주는 요소임.

서구문화를 중심으로 한 문화의 일반화는 다양한 문화유산을 획일적으로 만들고 말살합니다. 이 권고에서는 특히 개발과 함께 들어오는 소비주의 문화를 경고합니다. 아마존은 자연과 맞닿은 삶으로 인해 풍부한 이야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보물입니다. 34항에서는 다음과 같은 아름다운 표현으로 이를 강조합니다. “노인들은 자신들의 긴 이야기를 들려주며, 젊은이들은 잠시 멈추어 이 샘에서 물을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이 꿈은 다음 꿈으로 이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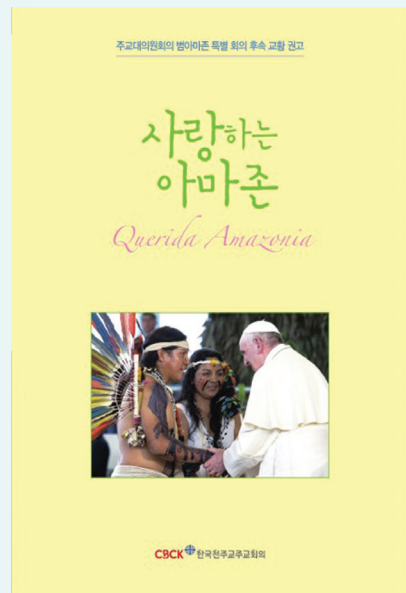
제3장은 ‘생태적 꿈’입니다. 아마존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시를 소개하면서, 한편으로는 아마존의 고통을 호소합니다. “지구가 지금 피를 흘리고 있다”(42항). 아마존 파괴의 밑바닥에는 자연에 대한 왜곡된 시각이 있습니다. 흔히 자연은 생산원료를 얻는 자원이거나 레저, 혹은 관광산업의 개발지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자연남용은 창조주를 모독하는 것이며 미래를 저당 잡히는 것”입니다(제42항).

지구의 균형은 아마존의 안녕에 달려 있습니다(48항). 무더진 양심을 일깨우고 아름다운 것을 경탄하며 음미하는 법을 길러야 합니다. 자연을 착취하던 사고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습관, 또 다른 삶의 양식인 “기쁜 절제”를 선택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소비주의와 ‘쓰고 버리는 문화’를 지양해야 합니다. 59항에서는 마음이 공허할수록 구매와 소비에 집착함을 지적³⁾하며 교회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그리하여 이 꿈은 교회의 꿈으로 이어집니다.

3) 「찬미받으소서」 204항에도 같은 내용이 있음.

마지막으로 ‘교회의 꿈’은 무엇보다도 “복음 선포의 꿈”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회적 메시지에만 골몰한다면 교회는 자선단체나 비정부 민간기구(NGO)가 될 것입니다(64항 참조).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은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아보았기 때문입니다(63항). 그러므로 복음 선포와 형제애는 함께 가야 합니다(65항).

「사랑하는 아마존」은 교황권고이면서 아름다운 시와도 같습니다. 딱딱한 설교가 아닌, “하느님 백성과 선의의 모든 이에게 보내는” 교회의 외침. 아름다우면서도 가슴 아픈, 그러기에 꿈을 향해 나아가자고 호소하는 예언자의 간절한 초대입니다. 🌿



의료민영화 - 민간 운영이 효율적이라는 환상

정형준 녹색병원 재활의학과 과장,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일반적으로

‘의료’는 환자를 치료하는 행위
→ 비영리, 공공재
환자치료를 위한 공간(병원), 장비
(의료기기), 약제
→ 영리기업, 사유재



5년 전, 사적인 의료 운영의 위험성을 강의했는데 다시 ‘민영화’가 논의 중이다. 공공병원을 없애고 민간에 넘기거나, 건강보험을 민간보험으로 바꾸는 것부터 전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공공의료를 방치하는 행위까지 포함된다.

#건강은 의료가 아닌 사회적 해결의 영역

민간운영에 대한 환상을 깨려면 건강을 말해야 한다. 보건의료 서비스의 영향은 일부분이고 노동환경·교육·지역사회가 중요하다. 돈이 없으면 여러 어려움에 처하고 건강이 급방 나빠진다. 물과 위생도 중요하다. 폐니실린 등의 개발이 질환 감소에 주효했을 거라지만 통계를 보면 홍역은 예방주사가 만들어지기 전 급감했다. 1차대전 후 삶의 질이 개선된 덕분이다.

한국에선 홍삼을 먹으며 야근을 한다. 외국 암학회의 발암물질 급수표상 ‘야간노동’은 2급. 야근을 줄여야지 홍삼을 먹는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건강은 의료가 아니라 사회적 해결의 부분이다.

#‘노화’도 ‘미루는 것’도 병으로 만드는 상품화와 산업화

간담독의 염증용 약을 비타민 성분 함유를 들어 피로회복제로 광고한다. 식약처 허가상 비타민은 피로회복과 식욕증진 효과가 있다. 식욕이 늘어 건강해지는 것을 착시효과로 알약을 만든 것이다.

알츠하이머도 40,50대 초반의 특별한 경우 말고는 나이가 들어서 ‘깜박’하는 노화다. 그걸 병으로 만든다. ‘미루는 것’도 정신과 질환으로 등재됐단다. 병으로 만들 수 없는 게 없다. 건강 문제를 의료적으로 바꾸는 게 ‘의료화’고 ‘상품화’와 ‘산업화’로 이어져 돈벌이가 된다.

‘치매’검사지는 미국에서 점수에 따라 보험금을 주다보니 생긴 정량적 진단방식. MRI도 안 아픈 데 보험금을 청구할까봐 찍게 됐다.

#정·재계·언론 한목소리로 밀어주는 영리병원

미국은 의료기기나 보험회사가 병원을 소유, 자회사 제품을 사용하는 의료산업 복합체 국가다. 국내에서도 이를 따라 영리병원 개념이 나왔다.

동아일보(2013년)는 ‘영리병원=실업 해법’이라고 썼다. 영리병원이 돈을 버는 방법은 과잉진료와 인원감축 및 임금삭감이다. 공공병원에 비해 적게 고용하는 데도 버젓이 기사를 냈다.

조선일보(2015년)도 박근혜정부가 제주도에 녹지병원을 승인하자 '13년만에 해외 영리병원 첫 허용. 국내 병원 역차별' 사설로 국내 허용을 촉구했다.

전경련의 7개 규제완화 중 2번이 영리병원이다.

재벌들이 서민들의 주머니를 노리는 가장 그럴싸한 방법이 건강이다. 먹는 걸로 장난치면 비난받지만 이 건강을 위한다는 선의로 포장할 수 있다.

녹지병원을 최종 허가한 이가 한국도부장관이고 국민 80%가 반대하는 영리병원을 찬성하는 이가 현대통령이라는 점은 우려했다.

#쇼핑몰부터 헬스케어까지 전방위 부대사업

부대사업은 산업화의 두 번째 방식. 세균과 바이러스가 넘쳐나는 병원 지하 전체가 쇼핑몰이고 서울대 어린이병원에는 재벌 계열사 햄버거집이 있다.

미국에선 아이들이 주사맞을 때 울면 곰인형을 준다. 1백달러. 알약을 담은 컵도 돈이고 의사를 만나면 기본이 4백달러다. 한 번 다녀오면 5천달러.

일찍이 미국식모델을 따라간 O병원은 수술로 돈을 벌어 부동산개발, 의료기기 유통, 헬스케어까지 사업을 펼쳤고 몇몇 의사들은 TV쇼에서 유산균 등을 판다.

#전염병 수준의 갑상선암 과잉진단과 비싼 특허약들

건강검진도 산업화됐다. 위암은 빨리 발견·치료한 덕분에 발병률이 는 만큼 사망률이 떨어졌지만 갑상선암은 발병률이 17년간 7%에서 72%대까지 늘었는데 사망률은 안 떨어졌다. 외국 의료지는 '한국의 갑상선 에피데믹' 전염병 수준으로 과잉진단의 결과라고 했다.

임상시험도 많이 하는데 개발된 약들은 특허에 걸린다. 만성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이 처음 들어올 때 특허를 인정하니까 환자들은 개당 2만원짜리 약을 매일 먹어야 했다.

유럽은 공익을 위해 특허를 무력화하는 장치를 쓰지

만 한국은 특허를 보장한다. 20%만 부담하고 나머진 건강보험에서 나가니 체감을 못하지만 약품 가격이 미국 다음으로 비싸다.

#과학수준 뛰어넘는 허구와 사기, 줄기세포 유전자 치료

진짜 민영화 사업은 줄기세포 유전자 치료제다. 방송에선 70대가 20대가 될 수 있다지만 불가능하다. 척수 손상환자를 일본에 데려가 1억원씩 받고 줄기세포를 시술한 경우도 있고 포털에 가면 유전자주사 등 광고도 많다. 그런데 유전자의 발현 과정이 다 밝혀진 게 없다. 아직 노화도 이해 못하고 흰머리를 검게 바꿀 수도 없다.

박 전대통령이 했다는 NK세포 활성화검사는 NK세포가 많으면 암에 잘 걸리지 않는다는 가설이 있을 뿐이다.

한국에서만 허가된 이 검사의 7년간 자료를 최근 평가한 결과 효능이 없었다. 복지부에 퇴출 문건을 냈지만 상상초월의 합리화로 유지되고 있다.

#신의료기술 규제 완화와 기계화로 큰 피해 우려

이게 가능한 건 정보 불균등성이 심해서다. 사기약인지 아닌지를 환자가 입증하기 어렵다. 유럽에선 주치의제로 대리인을 세운다.

주가조작도 한다. 시판제품도 하나 없이 임상시험만으로 시가총액이 4조5천억이 된 기업은 자기들이 먼저 주식을 판 탓에 입건됐을 뿐이다.

신의료기술 규제를 계속 완화한 탓에 사기약들이 나왔고 최근엔 7만달러짜리 돌봄 로봇도 등장했다. 마사지를 잘못하면 근육이 더 멎치는데도 기계로 만들어 호도상품으로 판다.

의료는 공공재다. 공공병원, 주치의제, 사회복지의 개념으로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피해가 너무 커진다. 

2022년 6월 13일 <아름다운 세상을 여는 미사>의 주제강의를 김아영 소피아 정평위원이 요약하였습니다.

탄소를 줄이기 위한 방법들

정부원 사도요한 신부 범일성당

전 세계가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들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며 탄소 중립에 눈길을 두고 있습니다. 화석 연료 사용과 같은 다양한 이유로 인해 이산화탄소와 같은 탄소 기체들이 대기중으로 배출되어 온실효과와 같은 다양한 현상들을 발생시킵니다.

친환경적으로 만든 제품이고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하는 제품이라고 광고하지만, 실제로 살펴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종이나 플라스틱 모두 재활용한다고 해서 분리수거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재활용되지 않는 제품들이 있었습니다. 영수증, 종이컵, 세제나 샴푸 용기에 사용되는 펌프 플라스틱, 카페 플라스틱 컵, 요거트 용기, 일회용 손가락 등입니다.

오랫동안 농사지으신 분들을 보면 매년 똑같은 패턴 속에 살아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넘쳐나는지를 알고 부족한 것만 채워야 합니다. 흙토람이라는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토양 성분을 조사하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흙을 시군농업기술센터로 보내 무료로 토양검정을 받아 필요한 성분의 비료만 사용하면 됩니다. 하지만 매년 똑같은 방법으로 비료를 과분하게 사용하고 강물로 흘러들어 오염시키게 됩니다.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전기차로 바꿀 수도 없고, 갑자기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수도 없습니다. 탄

소를 줄이기 위해 실제로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름에 추울 정도로 에어컨을 켜서 이불을 덮거나 겨울철 난방으로 더워서 반바지를 입는 것은 이상한 것입니다. 여름엔 조금 덥게, 겨울엔 조금 춥게 1도씩만 조절해도 연간 231kg의 이산화탄소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콘센트를 빼두는 것, 샤워시간을 2~3분만이라도 줄이는 것으로 탄소 줄이기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개인 텀블러, 장바구니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가정에서 1/5 정도만 줄여도 연간 150kg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저탄소 농작물 인증 마크가 있는 제품을 선택하면 좋을 것입니다. 가축을 생산할 때에 발생하는 메탄이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독일, 대만, 스웨덴 등 국제공동연구팀은 소고기 소비의 20%를 인공적으로 만든 어낸 단백질로 대체하면, 2050년까지 연간 삼림 벌채와 축산 관련 이산화탄소 배출을 절반으로 줄이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생활 속 탄소 줄이는 작은 실천으로 지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자원을 다 사용하고 화성, 목성으로 이사 가고자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지구를 살리고 후손들의 일상을 지켜주기 위해서 간단한 방법들을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



환경표지
인증 도안



환경성적표지
인증 도안



저탄소제품
도안

환경표지 · 환경성적표지 · 저탄소제품 인증 도안 [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좋은 정부의 우화(Allegoria del Buon Governo) 1338

암브로지오 로렌젠티 (Ambrogio Lorenzetti) 프레스코, 7.7m x 14m, 평화의 방, 시에나 시청사.

고은영 베로니카 미술품 복원가

선거가 끝나고 정부가 바뀌었다.

“검찰, 그리고 검찰 세력은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권력을 장악해 들어가고 있다. 검찰 세력의 권력욕이 우리 공동체의 안정성과 법의 지배를 파괴하는 형국에 이르게 되었다.” 2011년에 나온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의 구절이다. 11년 전의 불안이 현실이 되고 우리는 다시 “정부”란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

“공동선을 달성해야 하는 책임은 개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에게도 있다. 공동선은 정치 권력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한 <간추린 사회교리>의 표지에는 오래 전 “공동선”의 정치적 결과를 말한 그림이 있다.

1338년 로렌젠티가 시에나 시청사에 그린 <좋은 정부, 악한 정부의 우화>는 상징으로 선악을 비교하여 쉽게 식별할 수 있게 한다.

<좋은 정부>의 왼편에는 ‘지혜’, ‘정의’, ‘일치’가 수직으로 등장한다. 왕관을 쓰고 책을 든 ‘지혜’가 정상에 있고 그 아래 ‘정의’는 저울을 들고, 두 천사가 ‘분배’(왼쪽)와 ‘교환’(오른쪽)을 관리한다. 왼쪽 천사는 한 사람의 목을 베고 다른 사람에게 면류관을 씌우고 오른쪽 천사는 상인에게 밀과 소금을 측정하는 도구를 제공한다. 이것은 당시 시에나의 ‘정의’에 대한

인식으로 ‘정의’는 죄의 판단일 뿐만 아니라 경제의 규율이었다. 이 ‘정의’의 결과인 ‘일치’로 시민들은 공동체가 된다. 그에게 연대를 상징하는 밧줄을 받은 24명의 시에나 시민 행렬은 오른편 시에나 ‘시’의 상징으로 연결된다. 그의 오른팔에는 시민들이 건네준 연대의 밧줄이 묶여있다. 그리고 그의 양편에는 정부의 도덕적 덕목을 상징하는 여섯 우화가 있다.

올리브 가지를 들고 기대어 있는 ‘평화’와 철퇴와 방패를 든 ‘용기’, 과거와 현재를 읽어 미래를 예견하는 ‘신중’과 돈을 분배하는 ‘아량’, 시간을 현명하게 사용하라는 상징의 ‘절제’, 칼로 심판하는 ‘정의’가 있다.

그림의 테두리에는 “이 거룩한 덕은 많은 영혼을 화합하게 하며, 그들은 함께 모여 공동선을 만듭니다.”라고 적혀있다.

공동선의 지향이 평화의 삶으로 연결되는 이 작품은 교회의 사회교리가 중세 사회에도 이미 존재했음을 말해준다. 700년 전의 화가는 오늘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정부란 무엇인가 다시 가르친다. 🌿





선행 : 니사의 그레고리우스

김현 안셀모 신부 해양사목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마태 5,16)고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오랜 감염병의 대유행과 경제의 어려움으로, 내일을 걱정하며 고민하고 있는 이웃들에게 ‘종교의 역할은 무엇인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성찰하고 실천할 때인 것 같습니다. 1,600여 년 전, ‘카파도키아의 삼총사’ 중의 막내였던 니사의 그레고리우스(Gregorius Nyssenus, 335?-395)는 「선행」De beneficentia를 통해, 어려움에 처해있는 이 사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그 모범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집도 없이 헐벗은 채로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외국인 노동자들과 난민들입니다. ... 그들은 사람들의 연민에 의지하며 하루하루 구걸하며 살아갑니다. 식사라고는 사람들이 던져주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동물들이 마시는 샘이 그들의 식수원입니다. ... 이 잔인하고 방랑적인 그들의 삶은 날 때부터 정해진 것이 아니라 가난과 시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불행한 여러분의 형제들을 너그럽게 대해야 합니다. 하느님의 말씀과 선행을 통해 그들에게 빛과 식탁을 마련하고 포근한 쉼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애정 어린 말로 위로하고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그들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선행」De beneficentia.



“적은 것이 많은 것입니다” (『찬미받으소서』, 222항)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가톨릭 교회는 2021년부터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각 교구와 본당에서 ‘울부짖는 우리 어머니 지구’를 위하여 구체적인 생태 환경 운동에 발 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교회가 탄소 중립을 향한 발걸음을 살피며, 더 올바른 방향으로 힘 있게邁進해야 합니다.

농촌 사회의 희망인 소농 정책

농사지를 사람이 부족한 우리 농촌에는 대량생산 자본주의적 농업 방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업 방식은 화석 연료나 농약, 비료 등의 사용량이 급증하게 되며 소수의 고소득 기업농만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게 합니다. 소농들이 살아야 식량 주권(쌀을 제외한 식량 자급률 5% 이하)을 지키고, 탄소 중립이라는 커다란 가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농촌과 도시의 상생 관계가 더욱 간절한 시기입니다.

불편함 속에서 발견되는 탄소 중립

오늘날 우리의 삶을 떠올려 봅시다. 대형 마트에서 한꺼번에 장을 보고 택배와 배달 음식 등을 손쉽게 이용합니다. 저렴한 먹거리를 찾아 유전자 변형 농산물(GMO)이 들어간 제품이라도 망설임 없이 고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습관적인 소비의 삶에서 벗어나는 ‘생태적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일상의 불편함을 선택함으로써, 지구를 살릴 수 있는 생태 영성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우리농)의 첫 마음으로

주교회의는 1994년 춘계 정기 총회를 통하여 교회

가 우리 농민과 농토와 농업을 살리는 일을 적극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창조 질서를 보전하고 생태 환경을 생각하는 생명 농업을 시도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지향으로 1990년대 말까지 거의 모든 교구에 우리농 본부가 설치되었습니다. 가톨릭 농민회를 중심으로 새로운 농업의 농사가 시작되고, 도시 본당을 중심으로 우리농 나눔터가 설치되었습니다. 우리농이 25년여 시간 동안 참으로 의미 있는 길을 걸어왔음에 자긍심을 가집니다. 지금은 우리농이 추구하였던 방향을 되새기고 새롭게 정진해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우리 삶 전체를 생태적 기준으로 바라보고 작은 것이라도 함께 연대하여 행동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우리 시대가 생명에 대한 새로운 경의를 일깨우고 지속 가능성을 이룩하려는 확고한 결심을 하며, 정의와 평화를 위해 투쟁하고 삶의 흥겨운 축제를 위하여 노력한 때로 기억되도록 합시다”(『찬미받으소서』, 207항). 

2022년 7월 17일 제27회 농민 주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위원장 박현동 아바스



2022년 농민주일 담화(전문)

정의평화위원회 활동과 소식

+ 6월 아름다운 세상을 여는 미사 (약칭: 아세미)

6월 13일(월요일 19:30 가톨릭센터 소극장) 아세미는 ‘의료민영화’를 주제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형준 선생을 초대하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비교적 건강보험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던 우리나라에 공공병원을 없애고 영리 병원화가 추진되면서 의료재단은 건강을 상품화로 더 큰 수익 창출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과잉진료와 새로운 의료기술, 제약사의 무분별한 특허권 인정은 국민의 건강권과 진료받을 권리를 해치며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세미 이야기>를 참고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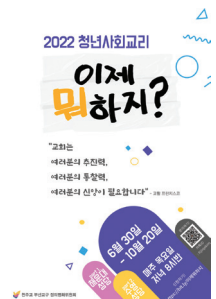
※ 아세미는 주제 강의를 있는 미사입니다. 뜻을 함께하는 누구나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2022 사회교리학교 주제강좌「찬미받으소서」와 함께하는 “생태영성” 종강

회칙 「찬미받으소서」와 생태영성을 주제로 한 송영민 아우구스티노 신부(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의 3차례 강의를 잘 마쳤습니다. 커다란 목표보다 미약하지만 내 안의 성찰과 실천으로 생태 감수성과 영성을 키워나갑니다. 64명의 수강생과 청강생 여러분 무더위에 수고하셨습니다.

+ 청년 사회교리 아카데미 ‘이제 뭐하지?’ 개강

6월 30일, 정의평화위원회 청년분과는 우동/남천지구 청년을 대상으로 사회교리 아카데미 '이제 뭐하지?'를 개강하였습니다. 총 13명의 청년이 참가하는 이번 사회교리 아카데미는 6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17주간 목요일 저녁 8시) 해운대와 수영성당에서 진행되며, 가톨릭 청년 사회교리서 '두캣(Docat)'을 길잡이로 강의와 나눔이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 2022 부산 차별 철폐 대행진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 부산 차별 철폐 대행진 마지막 날인 15일 오후 5시, 서면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강화와 차별없는 노동권 선전전 그리고 차별 철폐 문화제에 참여하였습니다.



+ 고리2호기 폐쇄,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반대!

6월 18일(토) 오후 2시, ‘고리2호기 폐쇄를 위한 부산시민행동’과 ‘탈핵시민행동’이 공동주최하는 ‘6.18 전국탈핵행동’이 부산역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전국에서 모인 탈핵 활동가와 시민들은 고리2호기 폐쇄와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반대 집회를 열고 핵없는 안전한 세상을 위한 활동을 이어갈 것을 촉구하며 광복로까지 행진하였습니다.



+ 경동건설 고 정순규 미카엘 형제 항소심 판결 및 기자회견

6월 23일 오전 10시 20분, 부산법원 254호 법정에서 ‘경동건설 하청노동자 고 정순규 미카엘 형제의 항소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안전구조물과 안전벨트도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옹벽설치 작업을 하다 추락 사망한 이번 사건은 목격자도 CCTV도 없습니다. 경동건설은 사고 발생 후 안전조치를 보강하였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원.하청의 법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엄중 처벌은커녕 고인이 수직 사다리를 무리하게 이용하려다가 추락했을 가능성을 인정하며,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사람이 죽어도 사과조차 없는 사측, 사측의 입장을 적극 반영한 사법부의 재판에 유족의 분노와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평위와 수도자들은 유족들을 위로하고 ‘중대재해없는 부산운동본부’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과 함께 재판 방청, 11시 기자회견에 동행하였습니다. 이후 항소심 결정에 따라 부산운동본부는 검찰에 상고 추구와 대법원에 책임자 엄중처벌을 추구하는 성명서를 6월 30일 발표하였습니다.

+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 연수

6월 27일부터 28일까지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김선태 사도요한 주교와 전국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여하는 연수가 전주교구 평화의 전당에서 1박 2일 진행되었습니다. 🌿

후원해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 5월 17일 ~ 6월 15일)

강운자 강인순 강정웅신부 고은영 권성일 권용대 김경란 김경석 김경숙 김광속 김선영 김인한신부 김종경 김진호신부 김흥기 나경문 류창훈신부 류형숙 맹정은 모세정의 박위옥 박정학 박종민신부 박준철 배미희 법무법인민심 법무법인부 산 변지혜 서경혜 손석호 송석희 신정금 심서경 심재영 아리 우무섭 유상우신부 유한이 윤영훈 윤용웅 이미영 이봉룡 이성애 이소라 이순옥 이영복 이우형 이윤호 이정기 이형규신부 장원창 전나미 전동묵신부 전윤희 전태일 정성호신부 정종태 정호신부 조계환 조동기 조영심 주님의축복을 차광준신부 최우인 최재경 최혁신부 최현욱신부 하민진 하희설 허채현 황수엽 황진 익명 | 원고 후원 | 강인구신부 고은영 김현신부 박힘찬신부 차광준신부

정의평화위원회를 후원(자동이체 신청)해주십시오.

정의평화위원회 후원계좌

- 농협 301-0465-9508-21 (천주교부산교구유지재단 정평위)
- 부산은행 113-2000-8639-05

>> 보내주신 후원금은 정의평화위원회의 소중한 사업비로 사용됩니다.

>> 후원인 가운데 연락처나 주소가 변경된 분, 그리고 소식지(아름다운 세상을 여는 이야기)를 이메일로 받아보실 분은 정의평화위원회 사무국으로 연락해주십시오. ☎ 051-465-9508)

✦ 정의평화위원회는

1967년 교황 바오로 6세의 사도적 서한에 근거하여 하느님 백성들이 오늘 그들의 역할을 충분히 깨닫고 가난한 나라의 발전을 촉진시키고 국제적인 사회정의를 권장하기 위한 교회기구로 설립되었습니다. 정의 평화위원회는 복음과 사회교리의 가르침에 따라 인간 존엄성과 창조질서 보전, 생명존중과 정의·평화 구현을 위하여 힘씁니다.

🔊 알립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여는 이야기> 통권 제97호는 내부 사정으로 2022년 7월과 8월호 합본으로 발행합니다.

**사드 쫓고 평화 생각해
한반도 평화 소성리 미사**

- ▶ 일시: 2022년 9월 5일(월) 14시 (10:00-18:30)
- ▶ 출발: 사상1차역 앞 공터 9:50 까지 집결
- ▶ 준비물: 점심도시락, 물, 간식
(또는 점심 찬식도시락 신청: 1만원)
- ▶ 신청마감: 8월 31일까지

천주교 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051-465-9508)

2022년 9월 아름다운 세상을 여는 미사

**난민 등의 국제적 보호와
권리 보장**



이탁건 테오도르 변호사
유엔난민기구 법무담당관

2022.09.19(월)
가톨릭센터 소극장

문의: 051-465-9508

천주교 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2022 7월 아름다운 세상을 여는 미사

**원자력(핵발전) 바로보기
기후위기의 대안인가**

2022년 7월 11일 (월) 저녁 7:30 가톨릭센터 소극장

강사: 이정운 임마누엘
-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
- 도서 '원자력 독서록' - 아무도 말해주지 않은 핵 안전 이야기 저자



문의: 051-465-9508

천주교 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전화 051-465-9508 **주소** 48968 부산광역시 중구 중구로71 가톨릭센터 5층

이메일 busanjustice@naver.com **홈페이지** busanjustice.pbcbs.co.kr